

시대 초월 오페라 명작, '토스카' 빛고을 무대

광주시립오페라단 푸치니 서거 100주년 기념공연... 6-7일 광주에당

마르첼로 모타렐리 지휘·최정상 라인업 '최고의 감동' 선사

광주시립오페라단이 푸치니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며 그의 걸작 오페라 '토스카'를 제 16회 정기공연으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오는 6일 오후 7시30분, 7일 오후 5시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지난해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큰 찬사를 받았던 시립오페라단의 콘체르탄테 '토스카'가 전막 오페라로 새로운 막을 연다.

푸치니의 '토스카'는 단 하루 동안 펼쳐지는 비극적인 러브스토리를 그린 작품이다. 가수 토스카, 그녀의 연인인 화가 카바라도시, 그리고 토스카를 차지하려는 경시총감 스키타르피아 사이의 긴박한 사건을 밀도 있게 그려낸다.

이 작품은 극적 스토리와 아름다운 음악으로 '라보엠', '나비부인'과 함께 푸치니의 3대 명작 오페라로 꼽힌다.

'1800년 6월17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에 일어난 실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푸치니 특유의 서정적인 선율이 돋보이는 아리아 '오묘한 조화',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별은 빛나건만' 등은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다. 이밖에도 토스카와 카바라도시의 사랑의 이중창, 토스카와 스키타르피아의 이중창은 극적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

이번 공연은 세계 정상급 출연진과 탄탄한 프로덕션이 결합한 고품격 오페라로,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예술감독 최철의 진두지휘 아래, 감각적 표현으로 호평받는 김지영의 혁신적인 연출과 사실주의 오페라의 대가 마르첼로 모타렐리의 정교한 음악적 해석이 만나 푸치니의 명작을 완성한다.

공연 라인업 또한 눈길을 끈다.

비운의 여인 '토스카'에는 소프라노 김라희와 민숙연이 맡아 그 비극적 운명을 열연한다. 그녀의 애인 '카바라도시'에는 테너 윤병길·이시아, 이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스키타르피아'에는 바리톤 고성현·박정민 등 최정상 성악가들이 무대에 오른다. 여기에 광주시립합창단, 광주CBS어린이합창단, 문화신포니에타가 완벽한 조화를 이뤘다.

최철 시립오페라단 예술감독은 "무대에 오르는 출연진뿐 아니라 무대디자인 김현정, 조명디자인 김민재, 음향감독 박기만, 의상디자인 박선미, 분장디자인 구우진, 영상정수림 등 최고의 크리에이티브팀이 상상할 수 없던 무대를 만들었다"며 "광주가 만들고 대한민국이 감동하는, 지금까지 만나 볼 수 없던 새로운 '토스카'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는 광주예술의전당과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티켓은 VIP석 12만원, R석 8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최명진 기자



지난해 광주시립오페라단 콘체르탄테 '토스카' 공연 모습

화려한 불빛 속 '희망의 싹'을 보다

전동민 작가 '빛 그리고 희망'展...6일까지 자미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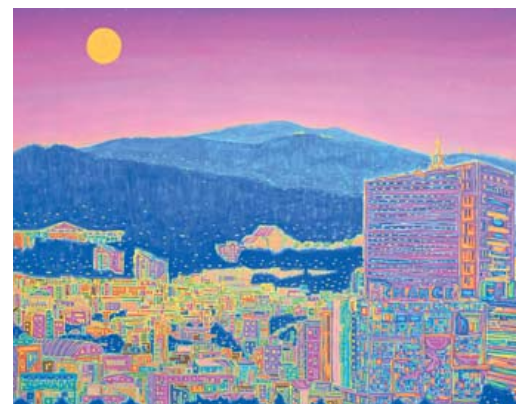
화려한 조명들로 불을 밝힌 도심의 모습은 서로 다른 색채의 조합에도 묘한 자연스러움을 연출한다. 복잡함 속 내면의 기쁨과 환희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전시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전동민 작가 개인전 '빛 그리고 희망'이 오는 6일까지 북구 자미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아둠 속 희망의 빛을 선사하는 회화 작품 13점을 선보인다.

한지에 채색기법을 사용한 그림들로 작품 속에는 인생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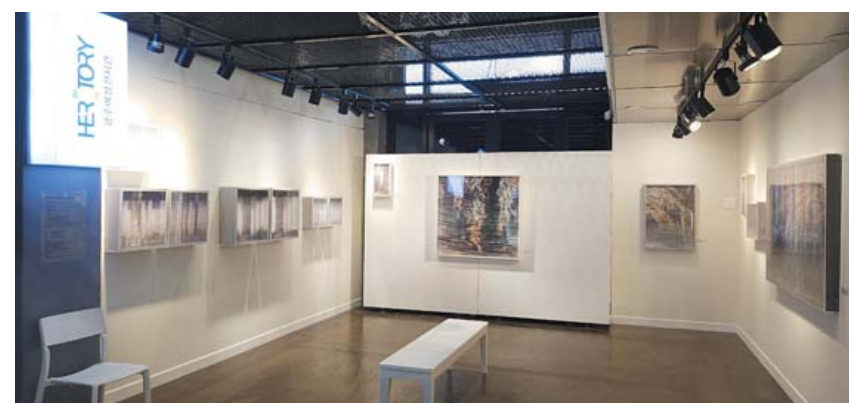
각정거리가 있을 때, 삶이 힘들다고 느낄 때 높은 곳에 올라 풍경을 내려다 보면 한다는 작가는 복잡하고 무질서



'광주 동구 전경'

한 도시의 모습 속 편안함을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작품 속 화려하면서도 섬세한 색의 표현은 하나로 어우러지며 또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낸다.

작가는 "생명 그리고 희망을 나타내는 화려한 불빛을 통해 관객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광주여성전시장 특별전 '관계' 전경

'관계의 끈'...평등 세상 꿈꾸다

광주여성가족재단 특별전...정예금 섬유예술가 참여

소중한 '관계의 끈'을 통해 모두가 평등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표현한 전시가 마련됐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오는 27일까지 광주시민회관 내 광주여성전시장에서 특별전 '관계'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재단 청사이전과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기획된 자리로, 광주 출신 섬유예술가이자 광주센터포럼 분과위원인 정예금의 작품 16점을 선보인다. 관계를 통한 치유와 소통을 주제로 하는 작품들이다.

'너와 나', 그리고 '우리'를 이어주는 관계를 형상화한 작품들은 반입체적 투영 작업으로 구현됐다. 모든 작업물

은 실로 연결돼 있으며 여기서 실이 주는 의미는 단순한 재료를 넘어 유기적인 관계의 힘을 드러낸다.

이와 함께 다양한 삶을 표현한 색실 드로잉의 가느다란 선들은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소통하는지 시사하고 있다.

특히 여성을 개별적 주제보다는 사회적 존재로만 인식하는 현실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서로 지탱하고 살아가는지 보여준다.

아울러 젠더와 페미니즘 의미를 담은 현대 섬유예술 작품을 통해 관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최명진 기자

캔버스에 담아낸 '남도 섬·바다의美'

문화예술협동조합 나무숲 기획展...목포 갤러리 나무 등서 4차례 진행

남도 섬과 바다의 미적 아름다움, 섬 주민들의 삶을 캔버스 한 폭에 담은 전시회가 열린다.

문화예술협동조합 나무숲은 4일 "오는 11월30일까지 4차례에 걸쳐 창작 공간 활용 '남도 섬' 기획 전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공모를 통해 선발된 작가들이 남도의 섬과 바다의 아름다움을 미학적으로 표현하고 섬이 간직하고 있는 고유한 역사와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예술로 기록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김호원(회화), 김현희(입체), 원을지(회화), 한갑수(도예) 등 네 명의 작가들은 목포와 무안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온 작가들로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전문가를 초청한 워크숍과 기점소악도, 병풍도, 암태도, 자은도 등의 섬에 대한 답사를 진행하고 이미지화해 평면, 입체 등 다양한 표현 기법으로 흥미로운 전시를 구성한다.

1차 전시는 4-25일 원을지 작가 '그리움으로 물들다', 한갑수 작가 '바다 건너에 사랑이 있었다'라는 주제의 전시(사진)가, 2차 전시는 10월2일부터 23일까지 김호원·김현희 작가의 창작 작품이, 3차 전시는 10월26일부터 11월8일까지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성과 발표와 아카이브전으로 목포시 목원동에 위치한 갤러리 나무에서 진행된다.

4차 전시는 신안군 자은도에 있는 둔장마을 미술



관에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11월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전시를 기획한 임영주 문화예술협동조합 나무숲 이사장은 "지역 출신의 사람들에게 섬은 늘 유년기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리움의 대상이며 특별한 의미가 있는 예술적 소재"라며 "남도의 생태·문화와 연계한 기획으로 진행된 이번 전시에 많은 지역민의 관람을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갖는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쳐겠습니다.

호젓해서 좋은

신안지도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3, 8, 13, 18, 23, 28일

※ 신안군내시장 : 송도수산물시장, 신안젓갈타운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신안군**

문의 : 062)650-2099